

해외출장복명서

	소속	직위	성명
출장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평등정책확산전략실 국제개발협력센터	부연구위원	장은하
출장기간	2018. 4. 17 (화) - 2018. 4. 20 (금)		
출장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출장목적	믹타(MIKTA) 여성과 평화유지 세미나 참석		
경비부담	인도네시아 외교부 부담		
주최기관	인도네시아 외교부		
회의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네시아 평화안보센터(IPSC) 시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네시아 평화유지군 현황 및 정책 브리핑 - 인도네시아 평화유지군 본부 내 시설 견학 및 훈련 참관 ○ 므타 여성과 평화유지 세미나에서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표 제목: 한국의 평화유지 활동과 여성 		
국제교류 네트워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네시아 평화안보센터(IPSC) Victor Simatupang 사령관 및 고위급 군 인사와의 오찬 ○ 인도네시아 외교부 국제안보군축과 및 다자협력과의 만찬 ○ 세미나 참석자 및 인도네시아 외교부와의 폐회 오찬 		

상세한 업무처리 및 세부내용은 별도 붙임

2018. 5. 17

출 장 복 명 자: 장은하 부연구위원

출 장 복 명 서

인도네시아 외교부 주최 므타(MIKTA) 여성과 평화유지
세미나 참가를 위한 인도네시아 출장

2018. 4. 17(화)~4. 20(금)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2018. 05. 17.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국제개발협력센터

1

출장개요

- 회의명: 인도네시아 외교부 주최 므타 여성과 평화유지 세미나 (MIKTA Panel Discussion on Women and Peacekeeping : Breaking the Ceiling, Keeping the Peace)
- 기간: 2018. 4. 17.(화) - 4. 20.(금) [2박 4일]
- 장소: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 출장자 및 역할: 장은하 국제개발협력센터장
- 역할: 한국 대표 참석 및 패널 주제발표, MIKTA 회원국 평화유지전문가와의 협력네트워크 구축
- 출장배경 및 목적
 - 본 세미나의 주최기관인 인도네시아 외교부는 2018년 므타(MIKTA) 의장국으로, 우리 외교부를 통해 한국의 평화유지와 여성의 역할에 관한 발표자 추천을 요청하였고, 우리 외교부는 본원의 장은하 국제개발협력센터장을 지명 초청함. (외교부 정책분석담당관-1247 (2018.04.03.))
 - 안토니오 구테흐스(Antonio Guterres) 현 유엔사무총장은 여성·평화·안보(Women, Peace, Security) 이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안보 의제에 있어서의 성 주류화를 추진하고 있음. 현재 유엔 정무국(UN Department of Political Affairs, DPA)에서도 여성평화안보(WPS)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 2018년 MIKTA 의장국인 인도네시아는 그룹 내 5 개국의 관련 정책과 경험을 공유하고자 하며, 본 세미나에서는 므타 회원국 5개국의 대표가 발표자로 참여함.
 - 우리 외교부 유엔과는 분쟁에 있어서의 여성의 역할에 대한 활동 요청을 다수 받고 있는 상황이나, 국내 PKO 담당부처에서는 젠더분야의 시각이 미비한 상황임. 이에 외교부는 본원에 여성·평화·안보(WPS) 의제와 관련한 활동과 연구, 네트워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본원의 협조를 적극 요청함. 이러한 시점에서 므타 의장국인 인도네시아 외교부의 초청으로 본 패널에 참석하여 한국 평화유지활동과 여성의 참여에 대해 발표하고, 므타 회원국의 현황을 공유함으로써, 글로벌 의제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우리원의 전문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 출장 일정:

일자	세부내용	장소
4/17 (화)	○ 출국: KE 627 인천 15:30 ○ 도착: 자카르타 20:30	인천 → 자카르타
4/18 (수)	○ 현장 시찰 (08:00~12:00) • 장소: 인도네시아 평화안보센터(Indonesia Peace & Security Center, IPSC) ○ 인도네시아 평화안보센터 사령관 및 고위급 군 인사와의 오찬(12:00~ 13:30) • 장소: IPSC 장교식당 ○ 인도네시아 외교부 국제안보군축과 및 다자협력과의 의 만찬 (19:00~21:00) • 장소: 자카르타 시 DoubleTree by Hilton Jakarta 호텔 식당	센툴(Sentul) 시 (자카르타 외곽)
4/19 (목)	○ MITA 여성과 평화유지 세미나(패널 토의) (09:00~14:00) • 장소: 자카르타 시 DoubleTree by Hilton Jakarta 호텔 • 주제: - 평화유지에서의 여성의 역할 증진, 동 분야에서의 므타 회원국의 역할 강화 지원 방안 모색 - 군대/정책 및 유엔평화유지에서의 여성의 완전한 참여를 저해 하는 구조적 장애요인에 대한 므타 회원국의 경험, 모범사례, 교훈 등 공유 및 교류 - 유엔평화유지군의 미션 수행의 효율성 증진을 위한 여성역할 증대에 대한 므타 회원국의 이니셔티브 모색 등 ○ 세미나 참석자 및 인도네시아 외교부와의 폐회 오찬 (12:40) • 장소: 자카르타 시 DoubleTree by Hilton Jakarta 호텔 식당 ○ 출국 KE628 자카르타 22:05	자카르타 시
4/20 (금)	○ 인천도착 (인천 07:15)	인천

□ 출범 배경

- 멕시코, 인도네시아, 한국, 터키, 호주로 구성된 중견국 협의체로 국제 사회에 대한 기여 확대를 위해 2013.9월 유엔총회 계기 출범
- 므타 5개국 특징 : △G20 회원국 가운데 G7 및 BRICS 어느 쪽에도 불포함, △ GDP 세계 11-18위(2016년 기준, IMF), △각자 속한 지역에서 상당한 영향력 보유
- 의장국 : 제1대 멕시코(13.9월-14.8월) / 제2대 한국(14.9월-15.8월) / 제3대 호주(15.9월-16.12월) / 제4대 터키(17.1월-17.12월) / 제5대 인니(18.1월-18.12월)

□ 협력 현황

- 각종 국제무대에서 북핵문제, 테러, 인도주의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해 공동보조활동 수행 (공동발언 및 공동성명 33건 발표)
- 2013-2017간 외교장관회의(11회), 국회의장회의(3회), G20 세르파회의 계기 회합(6회), 통상대화(3회) 개최 등 다층적 협력채널 구축
- △믹타 비전문서 채택(2015.5월) △7대 핵심 협력분야 지정(2016.1월) △믹타 협력 가이드라인 채택(2017.12월) 등을 통해 므타 협력의 구체적 방향성 확보
 - ※ 므타 핵심 협력 분야 : △에너지 거버넌스, △테러리즘 대응 및 안보, △경제통상, △거버넌스 및 민주주의, △지속가능 개발, △양성평등, △유엔평화유지활동(PKO)
- 학계·언론·학생층·기업·NGO 등에 대한 아웃리치 활동 전개
 - ※ (학계) 므타 아카데미 네트워크 회의 연1회 개최 / (언론) 므타 기자 초청 사업 실시 / (학생층) 한국 주도 므타 영리더스캠프 연1회 개최 / (기업) 므타 혁신그룹을 통해 기업가, 스타트업 등에 대한 아웃리치 전개 / (NGO) 호주 주도 므타 이노베이션 챌린지 사업 등 NGO를 통한 인도지원 사업 전개 등

*외교부 내부 문서 참조하여 작성

3

현장 시찰: 인도네시아 평화안보센터

(Indonesia Peace & Security Center, IPSC)

- 일시: 2018년 4월 18일(수)
- 장소: 자카르타 외곽 센틀 시
- 참석자: 인도네시아 평화안보센터 사령관 및 고위급 군 인사 외,
인도네시아 외교부 국제안보·군축과 직원, MIKTA 전문가 등

소속	참석자
인도네시아 평화유지군 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Victor Simatupang 사령관 (준장) • 3명의 부사령관 (대령) • 브리핑 담당관 (소령)
인도네시아 외교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r. Riando Sembiring 국제안보·군축과 부과장 • Mr. Ricardo Ruru 국제안보·군축과 서기관
MIKTA 전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roup Captain Deanne (Dee) Gibbon 예비역, 호주 퀸즈랜드 대학교 직장내 다양성 연구소 • Yeni Torres Salinas 중령, 멕시코 국방부 • Ms. Gülüzar Gündüz, 3급 경찰간부(3rd Degree Police Chief) 터키 경찰청 • 장은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개발협력센터장

□ 프로그램:

시간	프로그램
10:00~10:15	Victor Simatupang 사령관 환영사
10:15~11:00	인도네시아 평화유지군 브리핑 및 질의 응답
11:00~12:00	평화유지센터 시설 견학 및 훈련 참관
12:00~13:00	Victor Simatupang 사령관 주최 오찬
13:30	폐회

□ 인도네시아 평화유지군 현황 및 정책 브리핑 요약

- 평화안보센터: 2011년 12월 보스니아 평화유지군 출신인 수실로 유도요노(Susilo Yudhoyono, 2004~2014년 집권) 전 인도네시아 대통령에 의해 자카르타 외곽의 센틀 시의 250 ha의 부지에 설립됨. 2012년도에는 당시 반기문 UN 사무총장도 방문하였음.

○ 인도네시아 여성평화유지군 현황:

- 현재까지 인도네시아는 1957년 이래 3만7천 여 명의 평화유지군을 파병하였음. 이 중 256명이 여성임. 2015년부터는 여성 평화유지군 확대에 대한 필요성에 절감하고 여군 할당제를 도입하는 등의 정책을 통해 여성평화유지군의 수를 증대하고자 노력함.
- 2018년 현재 2천 여 명의 평화유지군을 8개의 임무(mission)에 파병

하였으며 이 중 65명이 여성임. 현재 콩고(MONUC과 MONUSCO), 시리아(UNSMIS), 레바논(UNIFIL), 중앙아프리카(MINUSCA), 말리(MINUSMA), 아비예이(UNISFA) 수단(UNAMID), 남수단(UNMISS), 아이티(MINUSTAH), 서사하라(MINUSRO)에 인도네시아 여성 평화유지군이 파견되었으며, 이들은 성인지적인 평화유지 활동과 지역사회 역량 강화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 여성평화유지군은 과거에는 행정직, 간호 임무에 주로 배치되었으나 구조, 경찰 업무와 같은 다른 임무로 그 역할을 확대하고 있음. 그러나 여성을 아직 전투요원으로 파병하지 않고 있음.
- 인도네시아 외교부 또한 유엔과 국제무대에서 평화유지활동에 있어서의 여성 참여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음. 2017년도에는 뉴욕에서 평화유지활동과 여성을 주제로 회의를 주관하였으며, 스웨덴과 국제세미나도 개최한 바 있음.



평화안보센터 외부



평화안보센터 입구 전경



평화안보센터 Victor Simatupang 사령관



평화안보센터 브리핑 및 질의응답



3일 후 남수단(UNMISS)로 파병 예정인 인니 여성평화유지군

- **평화유지군 훈련 참관:** 현지와 흡사한 기후(열대 우림), 주변 환경(정글), 유엔 시설(유엔 무장 차량, 앰불런스, 건물) 등을 갖추고, 연기자들을 고용하여 현지 시뮬레이션 훈련이 진행 중이었고, 참가자들은 동 훈련을 참관하였음.



현지 마약 사범 검거 상황 시뮬레이션



현지 주민 폭동 대응 훈련

4

인도네시아 외교부 주최 만찬

- 일시: 2018년 4월 18일(수) 저녁 7시
- 장소: 자카르타 DoubleTree by Hilton Jakarta 호텔 식당
- 참석자: 인도네시아 외교부 국제안보군축과장 및 직원, 다자협력과 직원, MIKTA 회원국 발표자 등
- 논의 내용: 인도네시아는 현재 2019-2020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에 당선되기 위해 힘쓰고 있음. 2018년 여름에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선거가 개최될 예정이며, 이사국 당선을 위해 인도네시아의 글로벌 평화를 위한 노력을 전 세계적으로 적극 홍보하고 있음. 특히 국제사회에서 인도네시아의 활발한 평화유지활동은 인도네시아의 주요 홍보 포인트 중의 하나이며, 이번에 개최하는 여성과 평화유지 세미나 역시 인도네시아의 이러한 노력의 일환임. 특히 여성 평화유지군 증대를 위한 최근 유엔의 적극적인 방침에 부응하기 위해 인도네시아는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동 세미나 또한 이러한 노력 중의 하나임. 경제, 사회 면에서 유사한 점을 공유하는 MIKTA 국가의 경험에 대한 발표와 토론은 향후 동 분야의 협력 확대를 위해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사료됨.



인도네시아 외교부 국제안보군축과 및 다자협력과의 만찬

믹타 여성과 평화유지 세미나 (MIKTA Panel Discussion on Women and Peacekeeping : Breaking the Ceiling, Keeping the Peace)

- 일시: 2018년 4월 19일(목), 오전 9시 ~ 오후 2시
- 장소: 더블트리 힐튼 자카르타 호텔
- 프로그램:

시간	프로그램
09:00~09:20	환영사 H.E. Dr. A.M. Fachir 인도네시아 외교부 차관
09:30~12:00	MIKTA 여성과 평화유지 패널 토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장: Ms. Anita Nirody, 인도네시아 유엔기관 연합 대표 (UN Resident Coordinator) <MIKTA 회원국별 평화유지활동과 여성 참여에 대한 주제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표 1: Ms. Grata Endah Werdaningtyas, 인도네시아 외교부 국제안보군축과장 • 발표 2: Deanne (Dee) Gibbon 예비역 소령, 호주 퀸즈랜드 대학교 직장내 다양성 연구소 부소장 • 발표 3: Yeni Torres Salinas 중령, 멕시코 국방부 • 발표 4: 장은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개발협력센터장 • 발표 5: Ms. Gülüzar Gündüz, 3급 경찰간부(3rd Degree Police Chief) 터키 경찰청
12:00~12:30	질의 응답
12:30~12:40	폐회사 Mr. Febryan A. Ruddyard, 인도네시아 외교부 다자협력국장
12:40~	오찬

□ 논의 내용:

- 인도네시아 평화유지활동과 여성: 2017년 현재 인도네시아 평화유지군 내의 여성의 비율은 3 퍼센트임. 정부는 이 비율을 점진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여성의 참여가 낮은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거론되지만, 남성 중심의 군대 문화가 지적되었으며, 여성이 집을 떠나 파병되는 것에 대한 문화적 거부감도 존재함. 인도네시아의 경우 여성이 파병되려면 남편의 허가 레터가 필요함. MIKTA가 여성평화유지 활동에 대해 상호협력하고 장벽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은 향후 여성의 참여를 증대시키는 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 또한 유엔이 평화유지 활동에 여성을 증대하기를 원한다면 그 만큼의 정책적, 인력적 투자를 할 것과, 여성 친화적인 파병 환경구축을 할 것을 요청함.
- 호주 평화유지활동과 여성: 자국 내 군대에 여성이 많아야 외국으로 파병하는

평화유지군에도 여성의 비율이 높아질 수 있음. 또한 여성의 평화유지 활동 증대를 위한 연구는 매우 중요한데, 실제로 추측하는 것과 직접 파병 여군들을 만나서 연구해 보면 파병에 있어서의 장벽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있음. 조사 결과에 따르면 많은 여군과 여경들은 평화유지 활동을 희망함. 그러나 가족과 장시간 물리적으로 매우 먼 거리를 떨어져 있어야 하는 현실적인 부담이 매우 큼.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똑같은 임무(post)에 두 명의 여성을 배치하여 이들이 단기간(3개월~6개월) 근무 후 스위치 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음. 또한 아프간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아프간 여성들은 군인보다는 경찰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가족과 지역사회를 떠나 먼 거리로 배치받는 것에 대한 거부감 때문임. 호주군의 경우 아이가 어린 여군들은 해외 근무를 되도록 하지 않고, 아이가 성장한 후에는 근무지를 옮기는 등의 가족친화적인 배려를 하고 있으며, 본인은 이러한 정책의 수혜자임. 이러한 여성 및 가족 친화적인 정책이 MIKTA 회원국에서도 추진되면 좋겠음.

- **멕시코 평화유지 활동과 여성:** 멕시코는 현재 아이티, 서사하라, 중앙아프리카, 콜롬비아에 평화유지군을 파병하고 있음. 멕시코는 특히 분쟁 상황에서의 여성에 대한 폭력 철폐에 앞장서고 있으며 이는 현지에서 유엔군의 성적 남용(abuse)을 방지하는 것도 포함됨.
- **한국 평화유지 활동과 여성:** 2018년 3월 현재 한국은 6개의 임무단에 총 649명의 평화유지군을 파병하였으며, 레바논과 남수단 두 국가에서는 부대 단위로 파병함. 평화유지군인 중 26명이 여성이며 이는 총 파병 인원의 4 퍼센트 임. 여성 평화유지군은 현지에서 의료지원(간호장교), 한글 교실운영, 현지 여성 경제역량 사업 운영 (재봉교실 등), 여성 경찰팀 활동, 폭발물 제거 임무, 시설 점검, 운송, 태권도 교실 등의 다양한 활동에 참가하고 있음. 한국 또한 여성평화유지군의 수를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법제도적 정비, 리더십의 의지, 젠더기반폭력 프로그램 포함 등의 평화유지 임무 조정, 젠더 전문가 파병, KOICA의 개발협력 프로그램과의 연계 등의 다양한 접근이 필요함.
- **터키 평화유지 활동과 여성:** 2001년부터 현재까지 총 32명의 터키 여경들이 여러 국가에서 평화유지 활동에 참여해 왔음. 현재는 5명의 여경들이 4개의 임무에 파견됨. 여성 평화유지군은 현지 지역사회에서 수용도가 매우 높으며 이들에게 역할 모델이 될 수 있음. 지역사회 경찰 시 현지 여성들은 여성평화유지군에게는 거리낌 없이 다가오고, 어떻게 하면 여성 경찰이 될 수 있는지를 물어 옴. 수단에서 근무한 경험에 의하면 여성 경찰들은 현지 여성들의 몸수색이 필요한 경우 에도 이를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으며, 현지의 성적 폭력 발생률을 낮출 수도 있음. 2011년 터키는 아프간 여경들을 터키로 초청하여 5개월 동안 교육, 훈련시켰는데, 이는 아프간의 여성상황을 고려하면 당시에는 거의 불가능했던 것이었음. MIKTA 회원국들은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Mr. Febryan A. Ruddyard, 인도네시아 외교부 다자협력국장과 세미나 발표자



현지 언론 보도 (Jakarta Post, 2018. 4. 20일자)